



“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진용
강릉시의회 의원

11대 후반기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요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초선의원으로 시작하여 시민의 안녕과 강릉시의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행정과 시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에 담으며 보냈던 지난 시간은 제가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후 감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의정활동 펼칠 터”

지난 2월, 강릉시의회에서 주최한 주민자치발전 포럼에 토론자로 나가셨는데요,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주요 현안에 관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는 강릉시의 대부분 읍·면·동에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친숙해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개념이 주민들에게 가깝게 전달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과 화합된 의견을 모아 실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주민들은 봉사 정신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내 특화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지역 내 ‘애향단’을 만들어 코스모스를 심는 등 우리 동네를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을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낯설게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또한 도심지와 읍·면지역의 차이가 커 탄력적이고 유연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릉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5분 자유발언으로 ‘강릉술향수목원’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강릉술향수목원은 전국 제일의 수목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림 레저스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림 여가활동 가운데

걷기, 산책, 등산 등은 60대 이상 고령층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자연을 찾는 젊은 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도 많이 찾지만, 숲속 길을 찾아 힐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더 다양한 산림 여가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목원 주변의 국·공유림과 잘 조성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산림 레저스포츠로 활용한다면 산과 바다를 찾는 강릉의 관광객들에게 더 뜻깊은 관광지로 인식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행정사무 감사, 결산 등 사후에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안이 사전에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담당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선의원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먼저 코로나 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곳곳하게 기다려주시는 시민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 현장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건강보다 청년들의 활동과 취업에 대한 걱정이 먼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의 걱정이 코로나 19 극복 응원으로 바뀌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웃을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G



“
시민과 함께
애환을 나누고
소통하겠습니다

조주현
강릉시의회의원

11대 후반기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당선증을 받던 날이 생각납니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번 <강릉 플러스> 인터뷰를 계기로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 저마다 각기 다른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느덧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소회라고 한다면, 시민들과 애환을 나누고 소통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쁜 일에 같이 환희를 느꼈던 제 자리가 영광된 소임이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강릉시 현안… 전담 부서 신설해야”

지난 4월, 강릉시의회 시즌제 포럼에서 ‘자치분권 시대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자로 나가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자치분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역소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 가지 대분류로 나누면 인구감소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재생사업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도시 재생 정책의 핵심입니다. 주민의 주도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강릉시가 주민의 의견을 잘 취합하여 성공적인 도시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려면 국토부의 정책 방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재창조’ 즉,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적 가치 향상 등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국토부의 방향에 맞는 정책을 강릉시에서 펼칠 때 비로소 성공적인 도시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강릉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최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29세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5%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 포털의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0년 3월에서 4월, 수도권 유입 인구 연령은 대부분 20대가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도 청년 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옥천동에 있는 도시 재생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강릉 청년센터를 조성·운영하여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강릉시가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도시, 젊은 생기가 돋는 희망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 첫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시 울리는 재난 문자를 보고 있자면 더 무겁게 피로감이 쌓여 옵니다. 장기간 거리 두기 강화 등 여러 제한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하루빨리 종식되길 희망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개인위생,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을 철저히 하여 국난과도 같은 이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강릉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0.~6. 30. / 21일간)



강릉시의회는 지난 6월 10일 제292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행정 사무감사를 거쳐 현장방문 등을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강희문 시 의장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회 분위기도 활기가 돌고 있지만, 다가오는 휴가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의회에서 집행 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하고 강조해 왔지만, 중요시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합심해도 헤쳐나가기 힘겨운 나날이지만, 수레의 양 바퀴가 협력해야 잘 굴러가는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조”를 당부하며 “강릉시민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자”라고 말했다. ㉠

제292회 정례회 대비 특강



강릉시의회는 지난 5월 28일 제292회 정례회를 대비해 외부 강사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의정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결산검사 문제점 적시 및 대안 제시 등 결산검사 실전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했다.

‘관광여행의 현황과 미래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발전 전략 포럼’ 개최



강릉시의회는 지난 6월 8일 라카이샌드파인에서 ‘관광여행의 현황과 미래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강릉시의회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과 손정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강상국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강릉시의 다양한 관광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원도립대 항공관광과 김진동 교수를 좌장으로,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가톨릭관동대 김영표 교수, 강원연구원 유영심 박사 등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희문 시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강릉은 산, 바다, 호수를 모두 갖춘 도시로 자연과 문화, 레저산업의 기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점을 활용해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선제적 마케팅을 추진 하자”라고 강조했다.

강릉시의회,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마무리



강릉시의회는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기금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으로 ▲관행적인 예산 편성 후 사업 미집행 또는 비효율적인 집행 ▲세외수입 결손 부분 최소화 노력 ▲추가경정예산 수시 편성 ▲불용예산 과다 ▲긴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집행 철저 ▲이월액과 불용액 적정성·타당성 분석 및 건전한 예산집행 필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지적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정광민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과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월사업이 과다할 경우 업무 가중으로 당해 연도 세출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수요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집행과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강릉시의회는 지난 5월 27일 ‘자치법규 의원연구회’, ‘전통시장 활성화 의원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연구회 의원들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광민 대표의원(강릉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은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되었는데, 민간위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산 낭비와 행정서비스 부실 등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라며 “심도 있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추진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규민 대표의원(강릉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은 “강릉시에는 여덟 곳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한 전통시장도 있다”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공간 창조와 상품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지속해서 찾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진 차례대로) 산업위원회 안전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방문(5.27), 강릉의료원 코로나 대응 현장 방문(6.4),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6.6), 행정위원회, 오리진~소돌항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 방문(6.21)

